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bkpark555@hanmail.net

I. 서론

금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에 이은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수교국이었다. 북한의 성립 과정에서는 소련의 지원이 주도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중국은 ‘피로써 굳어진 관계(鮮血凝成)’로 발전하게 되었다.¹⁾ 북중 간에는 한국전쟁과 냉전시기에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신과 갈등의 시기가 존재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념적 유대를 강조하며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지도자 교체, 주변국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 심하게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변화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도 1992년 8월에 이뤄진 한중수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2000년 5월 김정일의 베이징(北京) 방문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때 북중간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확대되고 인적유대가 약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양국관계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뒤, 북중관계는 더욱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내 친중파인 장성택이 처형되고

1) 일반적으로 북중관계를 묘사하는 ‘혈맹관계(血盟關係)’라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중국은 ‘선혈응성(鮮血凝成)’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순망치한(舜亡齒寒)’이란 용어보다 ‘순치상의(舜齒上依)’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周恩來與外國首腦及政要會談錄編輯組, 『周恩來與外國首腦及政要會談錄』, 北京: 台海出版社, 2012, p.321.

김정남이 암살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격화되면서 북중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관계는 소원을 넘어 경색과 냉각의 단계로 치달았다.²⁾ 그러나 북중관계의 돌파구를 연 것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던 '비핵화의 판'을 흔들었다. 중국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주변화(邊緣化)'의 우려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³⁾ 결국 북중관계는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전통친선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원점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한때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라고까지 북한을 비난하던 중국이 다시 북한을 끌어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시기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을 "미국의 협박과 요구에 굴복하는 짓대 없는 나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임무"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⁵⁾ 본고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중관계의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의 북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최근 북중관계 개선의 내용과 배경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대립했기 때문이다. 책임대국(責任大國)을 지향하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하기

2) 일례로 2017년 11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특사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고 푸대접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특사를 북한 지도자가 외면하는 일은 없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관계의 병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3) 이와 관련 『한구시보』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카드로 무역전쟁에서 공격해 올 수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 의 각종 카드를 견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環球時報』 2018년 3월 26일).

4) 『노동신문』, 2014년 7월 24일; 『노동신문』, 2016년 4월 3일.

5) 『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8일.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3월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으며,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⁶⁾ 이는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명분을 제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6자회담 이후 다시금 ‘중국역할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중관계의 긴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대상 또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측의 최고위급 상호방문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이른바 전통우호협력관계 내에서 상호관계를 형용하는 수사적(rhetoric) 표현들이 얼마나 깊이를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고위급 전략대화를 비롯한 당·정 부문의 전략적 소통이 얼마나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넷째, 양측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 등이다.

시진핑 및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중관계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양국 간에는 7년이 지나도록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어떤 때에는 북한 매체와 중국의 관영매체가 유례없이 상대방을 날 세워 비판하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악화일로 걷던 북중관계는 2018년 3월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5회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최근의 북중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섯 차례에 걸친 정상외교의 내용과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제1차 방중(2018. 3. 25~27)과 북중관계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던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서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했지만, 그의 방중은 국제무대への 첫 등장이었

6) 『新華通信』, 2018年 3月 28日.

을 뿐 아니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제1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추구에 밝은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의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 소통강화라는 양국관계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John Bolton) 등 대북강경파로 외교·안보라인을 재구축하자 북중관계를 일정 수준으로 회복하여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⁷⁾ 셋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의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틈새를 이용해 북중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대북제재 이완의 계기를 만들고,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과거 중소분쟁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갈등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요청을 수락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⁸⁾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국면부터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의 과정에서 이른바 ‘차이나패싱(중국소외)’으로 고립감을 느끼던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상황 전환의 ‘호기(好機)’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중국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멀어져 가던 북한을 다시 자국의 영향권 안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여과 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집권 2기에 들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핵문제 등 외교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공간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은 집권 이후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의 환대로 끌어 안았고, 북중 최고지도자는 관계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냉랭하던 양국관계를 개선하는데 치중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후 환영 만찬에서 “북중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임무”라고 주장했다.⁹⁾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불과 2주 만에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중국예술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시진핑 주석의

7)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다”라고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평화협정이나 대북 경제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adio Free Asia』, March 23, 2018).

8)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의 요청에 의해 북중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지만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북한의 방문제의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다. 일례로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6일 환영만찬 연설에서도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준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8일).

9) 『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8일.

특사로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으로, 이는 북중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에 따른 파급영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외교무대 데뷔의 첫 장소로 베이징을 선택한 것은 ‘비핵화의 판’에 중국을 후견 세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북중관계 개선은 ‘비핵화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로 중국이 다시 추가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합중연형’의 복합방정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¹¹⁾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를 둘러싼 형세가 1대 5의 구도였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대북압박구도는 2대 4 내지 3대 3의 구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2. 김정은 위원장의 제2차 방중(2018. 5. 7~8)과 북중관계

김정은 위원장은 3월 방중 이후 43일 만인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다시 중국 다롄(大連)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이용했던 1차 방중과 달리 제2차 방중에서는 전용기(잠매 1호)를 이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6월의 북미정상회담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일정을 급히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한 이동수단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미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된 첫 국산 항공모함 건조행사 참여를 포함한 지방 일정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런 방중 요청에 대해 다롄 현지에서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¹²⁾

당시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 기준을 종전의 ‘완전한’ 핵폐기(CVID)보다 한 단계 높여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폐기(PVID)를 요구하고, 폐기 대상에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¹³⁾ 북한은 비핵화 협상조건을 계속 높이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협상의 균형추를 맞추고자 의도한 측면이 작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시진핑 주석과의

10)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송타오 부장의 면담을 보도하면서 “북중간 전략기술적 협동 강화를 논의했다”라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18일).

11) 박병광, 「김정은과 시진핑 첫 만남, 코리아 패싱 벌어지나」(『중앙일보』, 2018년 3월 29일).

12)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에서 머물렀던 방추이다오(樺鑛島) 초대소는 김일성 전위원장이 1983년 덩샤오핑(鄧小平) 전주석과 비밀회동을 가졌던 곳이며, 2010년 5월에는 김정일 전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바 있다(『조선일보』, 2018년 5월 9일).

13) 『연합통신』, 2018년 5월 2일.

1차 정상회담에서 북중관계 복원에 합의한 만큼,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비핵화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함과 동시에 중국의 우군(友軍)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북한으로서는 향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는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 역시 무역분쟁 및 대만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다롄회담에서 “중국은 관련 각국과 함께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항구적 평화실현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라고 강조하였다.¹⁴⁾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정세 변화과정에서 중국의 소외를 방지하고, 북한에 대한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전개될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제2차 북중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최고지도자 사이의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진일보한 북중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¹⁶⁾ 김정은 위원장은 다롄 방문에서 “조·중 사이의 마음속 거리는 더더욱 가까워졌고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내왕을 확대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동지의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이고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¹⁷⁾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의 귀환 직전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고견을 들려줘 감사하다”라는 말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으며, 북한 매체들도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논했다고 보도했다.¹⁸⁾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에 따른 북중관계 밀착은 미국의 불안과 우려를 야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 귀환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14) 이성현, 「중국이 보는 김정은 재방중과 한·중관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8년 6월, p.5).

15) 『CCTV』, 2018년 5월 9일.

16) 이를 반영하듯 『노동신문』은 정상회담 후 열린 5월 7일 만찬자리를 “외교적 관례와 격식을 초월해 두 나라 인사들이 한 집안 식구처럼 어우러졌다”라고 표현했으며, 8일 진행된 ‘해변산책’에서는 “홍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노동신문』, 2018년 5월 9일).

17) 『조선중앙통신』, 2018년 5월 8일.

18) 『조선중앙통신』, 2018년 5월 9일.

두 번째로 만난 다음 태도가 좀 변했다”라며 “시 주석은 세계적 수준의 포커선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¹⁹⁾ 비핵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긴밀한 북중교류가 또 다른 상대인 미국에는 불편함을 야기하여 중국이 견제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3. 김정은 위원장의 제3차 방중(2018. 6. 19~20)과 북중관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을 약속받았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9일 또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비핵화 후속 협의를 시작하기 전 다시 우군(友軍)을 찾음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대책 및 대북제재 해제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호의에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려는 의도 역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에 대해 철저한 비밀주의를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으며, 중국외교부도 이를 공식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CCTV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 직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북한 노동당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중국 방문을 진행한다”라고 속보를 타전했고 주요 활동모습을 매일 보도했다.²¹⁾ 이는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무대가 베이징이었다는 점에서 직·간접으로 북중관계의 긴밀함과 더불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외부세계에 보여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은 그를 수행한 당·정 간부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²²⁾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방중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총리를 대동했으며, 이는

19) 『연합통신』, 2018년 5월 23일.

20) 중국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전용기를 대여해 주었고, 중국 상공을 통과할 때에는 전투기를 보내 호위하는 등 유례 없는 특별 대우를 제공했다.

21) 북한 지도자가 북·중 국경을 넘어서기 전에 중국 정부가 방중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방송 보도를 한 것은 북중교류 6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22)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리수용·김영철·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수행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협력 강화와 동시에 양국 정부간 왕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대동한 것은 그동안의 장벽을 완전히 헐고 중국과 군사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는 양국의 당·정·군 관계가 전면적인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가 점점 밀월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 중국을 ‘한 집안 식구’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양국관계를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관계의 ‘3가지 변할 수 없는 것(三个不会变)’을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 없이 첫째,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관계를 공고히 하는 확고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중국인민의 북한인민에 대한 우호관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중국이 사회주의 북한을 지지하는 것 또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²³⁾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중국정부가 북중정상회담을 위해 다른 나라 정상과의 일정을 급히 바꾼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당초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6월 20일에 떠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19일에 귀국했다. 모랄레스가 베이징을 떠난 6월 19일 저녁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환영만찬에 참석했으며, 이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조기 귀국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중국 지도부가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김정은 위원장의 제4차 방중(2019. 1. 7~10)과 북중관계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외교 분야의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집권 후 4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초부터 베이징을 찾은 것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밀착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은 트럼프 미국

23) http://news.youth.cn/sz/201806/t20180622_11649821.htm(검색일: 2018. 6. 22).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중국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习近平指出：“中国党和政府高度重视中朝友好合作关系，无论国际和地区形势如何变化，1)中国党和政府致力于巩固发展中朝关系的坚定立场不会变，2)中国人民对朝鲜人民的友好情谊不会变，3)中国对社会主义朝鲜的支持不会变。”这三个“不会变”为中朝关系行稳致远奠定了坚实基础。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또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²⁴⁾

북한과 중국은 제4차 북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문제와 비핵화 방안, 대미협상 등에 대해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했다”라고 보도했다.²⁵⁾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논의 개시 등 북한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매체들은 4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믿음직한 후방’, ‘견결한 동지’, ‘벗’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로 중국을 찾은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금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이란 점에서 새해 초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를 관통하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기조를 다지고자 했을 것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 방문을 통해서 기존의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자 했을 것이다. 미국의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압박기조 속에서 2018년도 북중무역액은 60%가량 감소한 상태였다. 이는 작년에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 중국 방문이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소개하면서 북중관계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지관계이자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승화 발전된 훌륭하고 위대한 관계”라고 규정하였다.²⁶⁾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내세우는 자극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수사(rhetoric)와는 별개로 양국관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국가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민낯을 발견하고는 한다. 마찬가지로 4차 방중을 소개하는 북한과 중국의 공식문건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귀국 후 중국외교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자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매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함으로써 제2차

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5) 『조선중앙통신』, 2019년 1월 10일.

26) 『노동신문』, 2019년 1월 10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트럼프가 의심하듯이 중국은 절대로 배후에서 작용하는 북미회담과 비핵화의 ' 훼방꾼(spoiler)'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먼저 양보할 수도 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5. 시진핑 주석의 방북(2019. 6. 20~21)과 북중관계

금년 1월에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에서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올해 북중관계의 최대 이벤트가 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정세와 미중 무역전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북중수교 70주년인 10월 6일까지 시 주석의 방북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6월 하순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2008년 6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부주석 시절 첫 해외 순방지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 최고지도자의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에 화답한다는 성격을 지닌다. 올해가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것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답방 요청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우의를 증진한다는 것과 더불어 한반도정세에서 '존재감'을 찾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의 하나는 자국의 영향력 유지이다. 금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에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미국에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탑-다운 방식으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방문 시에 남북 및 북미 간에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의 '물밑 대화'에 대한 진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평양 방문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미대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활용하고 싶었을지 모른다.²⁷⁾ 시진핑 주석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고 미중간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 의사를 다지는 것은 무역전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 직전 이례적으로 노동신문 1면에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는 점이다.²⁸⁾ 시 주석은 특별기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지하고,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대화를 통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 실현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라고도 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 제기해 온 ‘안보 우려’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그 속에는 북한의 체제안정과 제재완화를 포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견 표출은 중국이 향후 북한의 ‘뒷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발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이 닿는 한(力所能及)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²⁹⁾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측면도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를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했다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는 비핵화라든가 중국의 역할에 관한 사의나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며

27) *New York Times*, June 22, 2019.

28) 『노동신문』, 2019년 6월 19일.

29) 『人民日報』, 2019년 6월 21일.

비핵화와 관련된 약속이나 메시지를 부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중개자를 거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사실은 양국이 이념적 동질성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면서 국가이익의 필요에 따라 관계 회복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¹⁾

<표 1> 한·중 수교 이후 북중정상회담

일시	회담 인물	장소	배경과 주요 의제
2000년 5월	장쩌민-김정일	베이징	- 한중수교 후 첫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직전 회담
2001년 1월	장쩌민-김정일	베이징	- 김정일 상하이 푸둥 방문 - 방중 이후 7·1 경제개혁초치 실행(2002년)
2001년 9월	김정일-장쩌민	평양	- 장쩌민의 두 번째 방북(1990. 3. 이후) - 북중관계발전을 위한 16자 방침 제시
2004년 4월	후진타오-김정일	베이징	- 후진타오 집권 후 첫 정상회담 - 제2차 북핵위기 후 첫 정상회담
2005년 10월	김정일-후진타오	평양	- 후진타오 주석의 첫 북한 방문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논의
2006년 1월	후진타오-김정일	베이징	- 김정일 회복, 광둥, 베이징 방문 - BDA문제로 6자회담 공전
2010년 5월	후진타오-김정일	베이징	- 천안함 사건 직후 정상회담 - 전략적소통 강화 등 5개안 제시
2010년 8월	후진타오-김정일	창춘	- 선친의 혁명유적지 방문 - '혁명전통'을 내세워 3대세습 정당화
2011년 5월	후진타오-김정일	베이징	- 김정일의 연속 3회 중국 방문 - 3대 세습체계 형성에 공감대 마련
2018년 3월	시진핑-김정은	베이징	- 김정은 집권 후 7년만의 첫 방중 - 남북정상회담 직전 회담
2018년 5월	시진핑-김정은	다렌	- 김정은 43일만의 잇따른 전용기 방중 - 북미정상회담 직전 회담
2018년 6월	시진핑-김정은	베이징	- 북미정상회담 직후 회담 - 방중 당일 CCTV 보도로 대외공개
2019년 1월	시진핑-김정은	베이징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회담 - 방중 당일 노동신문, CCTV 보도
2019년 6월	김정은-시진핑	평양	- 일본 오사카 G20 회의 앞두고 방북 - 북중수교 70주년 기념 우호관계 증진

30)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다녀가고 불과 열흘도 안 되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사실상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31) 일부 연구자는 이를 중국의 시각에서 동맹관계와 정상국가관계 사이에서 선택적 균형을 통해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대북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문흥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제38권 3호, 2014, pp.15~35).

III. 북중관계의 협력 실태와 한계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관계의 개선 및 회복은 양국관계의 협력과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다. 북중간 협력은 비핵화를 둘러싼 정치·안보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외교부장 왕이(王毅)는 금년 3월 8일 진행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국가전략을 구사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³²⁾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6월 평양방문에서 “힘이 닿는 한 북한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도 했다. 중국 측의 이러한 의지는 양국지도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협력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그 동안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꾸준히 밝혀 왔다.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같은 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중러 3국 외무차관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북중러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취한 중요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3국은 유엔안보리가 이에 맞춰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³³⁾ 대북제재에 관한 3국 공동성명이 비록 모스크바에서 발표되기는 했지만 북중관계의 밀착이 없었다면 이것 역시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으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쌀 1천톤, 비료 16만 2천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³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5월의 2차 방중, 6월의 3차 방중을 계기로 무상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북중수교 70주년인데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상원조가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북중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대중수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점증하는

32) 『新華通信』, 2019년 3월 8일.
 33) 『한겨레』, 2018년 10월 10일.
 34) 『연합뉴스』, 2019년 5월 19일.

추세이다. 일례로 북한은 금년 4월 2,226만 5,000달러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가 발효된 작년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작년 2월 942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월 1,000만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작년 8월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금년 4월 북한의 대중수입액도 작년 같은 기간의 1억 6,179만달러보다 5,000만달러 이상 증가한 2억 1,870만달러를 기록했다.³⁵⁾ 이는 어찌 보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면서 북한과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遊客) 수가 한층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30여 년간 양국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거렸던 것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한층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인의 공식적인 북한 관광은 1988년 4월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44명이 버스로 압록강을 건너서 하루 동안 신의주를 둘러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에 중국정부가 평양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추가 승인하면서 단둥(丹東)을 거치는 중국인 방북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북중수교 60주년을 맞아 원자바오(溫家寶) 전총리가 북한을 찾았고, 양국은 북한을 단체관광목적지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23만 7천명에 이르렀고,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평양의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3월부터 평양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하루 1천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³⁶⁾

나아가 중국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遼寧省)은 단둥(丹東)을 관문으로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장하는 사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³⁷⁾ 랴오닝성이 발표한 ‘遼寧「一帶一路」綜合試驗區建設總體方案’은 랴오닝성을 허브로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건설 계획이다. 향후 한반도정세가 완화되고 북한의 경제개혁이 실시될 경우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북한과 경제적 연계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AIIB 기금을 활용해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³⁸⁾ 이러한 중국정부의 구상은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과 전략적 접근 의도를 보여준다.

35) 『VOA』, June 19, 2019.

3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한국,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p.29-47.

37) 『遼寧日報』, 2018년 9월 11일.

38) 『오마이뉴스』, 2019년 5월 27일.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양국간 교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분야의 교류와 협력이다. 김정일 전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2)에 따른 북중 협력관계의 악화와 전략적 소통의 부재는 군사분야 인적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간 군사 분야의 교류 횟수는 김정일 전 위원장 시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³⁹⁾ 그리고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협력수준에 관계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온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10월 25일)의 기념행사도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최고지도부의 관계 개선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 교류가 정상화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 방중 당시 대표단에는 마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이 포함되어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그리고 8월에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화 주임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김수길의 방중에 따른 북중 고위급 군사회담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양국간에 공개된 첫 고위급 군사회담이기도 하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마오 주임이 ‘시진핑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라며 회담 내용 및 연회 내용 등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한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조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도했다.⁴⁰⁾ 김수길의 방중을 통해 북중이 고위급 군사교류를 공개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및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측 군사교류 역시 정상화되었다는 점이며, 이것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중국이 나서겠다는 신호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북중관계가 다방면에서 악화 일로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회복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기대한 만큼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밀착하는 의도의 한쪽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역할이나 노력을 통해 대폭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과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만은 없는 역학관계와 환경이 작용한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양국간

³⁹⁾ 이교덕·김병로·박병광, 『북중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46.
⁴⁰⁾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8일.

마찰이 심화되면 중국은 대북제재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대미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고려사항

최근 주목되는 북중관계의 전격적인 개선과 밀착은 북한의 접근과 필요가 작용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국간 '이해(利害)의 일치'를 가장 큰 배경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급속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경우 중국을 우군화(友軍化)함으로써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북중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과정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주변화(邊緣化)'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일거에 동북아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중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진화해 왔을지라도 국가이익에 근거하는 정책의 변화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서도 근본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과거의 지정학적 대립구조 및 냉전체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김일성 전위원장 시대로부터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안정유지와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고 하는 대북정책을 지속해야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북중관계의 회복과 밀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북중관계가 긴밀히 밀착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관해서는 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중국의 한반도 균형추는 북한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향후 한반도정세 변화 과정에서 주요 게임 플레이어가 증가됨으로써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서 결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평화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유엔(UN)군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입장이 투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정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제도화 및 안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좋든 싫든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중국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건설적 조력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으로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폭적인 관계개선을 토대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치적 여건도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의 북중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심지어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중러 3국간의 정치·경제적 협력 가능성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과 북중러 협력구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하는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의 다자경제협력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 문홍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제38권 3호, 2014.
- 박병광, 「김정은과 시진핑 첫 만남, 코리아 패싱 벌어지나」, 『중앙일보』, 2018년 3월 29일.
- 이교덕·김병로·박병광, 「북중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통일연구원』, 2014.
- 이성현, 「중국이 보는 김정은 재방중과 한·중관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8년 6월.
- 『오마이뉴스』, 2019년 5월 27일.
- 『조선일보』, 2018년 5월 9일.
- 『연합통신』, 2018년 5월 2일.
- 『연합통신』, 2018년 5월 23일.
- 『연합통신』, 2019년 5월 19일.
- 『한겨레』, 2018년 10월 10일.
- 『노동신문』, 2014년 7월 24일.
- 『노동신문』, 2016년 4월 3일.
- 『노동신문』, 2018년 5월 9일.
- 『노동신문』, 2019년 1월 10일.
- 『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8일.
- 『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8일.
- 『조선중앙통신』, 2018년 5월 8일.
- 『조선중앙통신』, 2018년 5월 9일.
- 『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18일.
- 『조선중앙통신』, 2019년 1월 10일.
-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8일.
- Radio Free Asia, March 23, 2018.
- New York Times, June 22, 2019.

VOA, June 19, 2019.

周恩來與外國首腦及政要會談錄編輯組, 『周恩來與外國首腦及政要會談錄』, 北京: 台
出版社, 2012.

『新華通信』, 2018年 3月 28日.

『新華通信』, 2019年 3月 8日.

『環球時報』, 2018年 3月 26日.

『人民日報』, 2019年 6月 21日.

『遼寧日報』, 2018年 9月 11日.